

피는 물보다 진하다...K리그 형제선수들의 추억



보기 드물었던 형제 축구선수들이 국내 프로축구에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쌍둥이 형제로 명성을 떨친 김강남-김성남(왼쪽 사진부터), 5형제 축구가족 유동기~유동관~유동준~유동우~유동우, 성남 일화(성남FC 전신)에서 한술밥을 먹은 형제 남궁도-남궁웅 등은 K리그의 한 시대 를 풍미한 축구형제들이다.

쌍둥이 국내부터 한술밥 외인까지 '형제는 용감했다'

(김성남-김강남 형제)

(이랜드 와다 형제)



최현길 전문기자의 스포츠 에세이

큰형 김정남~막내 김형남 축구형제 집안 차상광-차상해·남궁도-남궁웅 스타 형제 홍정남-홍정호 형제, 올 시즌 전북서 호흡 하대성-하성민·이범영-이범수는 적으로

프로축구가 태동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형제가 함께 K리그에서 뛰는 경우는 드물었다. 운동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부모 입장에서 형제 가운데 한쪽이 운동을 하면 다른 쪽은 공부나 기술을 가르쳤다. 운동해서 인생역전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기에 진로를 달리했다. 또 누군가는 집안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생존본능이었다. 혹여 함께 운동을 했더라도 10대 초반부터 프로무대까지 어깨동무하고 올라간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런데 요즘 K리그에는 형제선수들이 부쩍 늘었다. 운동하는 환경이 좋아진데다 운동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니 집안에서도 딱딱 밀어주는 모양이다. 형제가 함께 프로 무대를 밟는다는 건 집안의 경사다. 뒷바라지는 힘들지만 형제 프로선수는 운동 시키는 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그런데 역대 K리그 기록을 살펴보면 형제가 한꺼번에 스타덤에 오른 케이스는 흔치 않다. 둘 중 한쪽이 성공하면 다른 쪽은 비교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런 게 그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일지도 모르겠다.

K리그 최초의 형제선수는 김성남-김강남-김형남이다. 김성남-김강남은 쌍둥이다. 특히 이들은 4형제 축구선수 집안으로 유명하다. 1986년 멕시코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김정남이 큰 형이고, 김형남은 막내다. 1954년 7월19일생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던 김성남-김강남은 홍콩 무대에서 뛰다가 국내 프로리그가 출범한 1983년, 늦은 나이에 유광(현 제주)에 입단

했다. 이듬해 이적(대우)도 같이 했다. 김강남은 2시즌 16경기 1골, 김성남은 3시즌 18경기 1골을 각각 기록했다. 김형남은 포철에서 2시즌(1983~1984년)을 보냈다.

한국축구사엔 4형제보다 더 많은 5형제 축구가족도 있었다. 유동준-유동관-유동우-유동기-유동욱이 그 주인공인데, '군산의 명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중 프로에 입단한 형제는 유동관과 유동우다. 유동관은 포철에서 10시즌을 뛰며 207경기에 출전했고, 1995년 전남에 입단한 유동우도 수비수로 7시즌을 활약했다.

1990년대 형제 스타는 골키퍼 차상광-공격수 차상해다. 1990년대 초반 둘 다 태극마크를 달았다. 1986년 럭키금성(현 서울)에 입단한 차상광은 1997년 성남에서 은퇴할 때까지 226경기를 뛰었다. 은퇴 이후 줄곧 골키퍼 코치를 하고 있다. 1989년 럭키금성에 입단한 차상해는 당시 로선 보기 드문 191cm의 큰 키를 자랑한 스트라이커로 주목을 받았다.

남궁도-남궁웅도 이름깨나 알려진 형제다.

남궁도는 2001년 전북에 입단해 2014년 안양에서 은퇴했고(통산 254경기), 남궁웅은 수원~성남~강원을 거쳐다. 여승원-여승원도 쌍둥이로, 2004년 인천에 함께 입단한 가운데 여승원은 인천~상무~수원을 거쳐 78경기를 뛴 반면 여승원은 2군리그에서 2시즌을 보냈다.

한 팀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형제선수들은 2018시즌 개막을 손꼽아 기다린다. 중국 슈퍼리그 장쑤 쑤닝에서 임대로 K리그에 등지를 틈 홍정호와 홍정남은 전북 유니폼을 입은 형제다. 2007년 전북에 입단했던 형 홍정남은 인고의 세월을 거쳐 지난 시즌 주목 받은 골키퍼고, 동생 홍정호는 국가대표를 지낸 수비수다.

제주 이창근-이창훈도 올 시즌이 기대되는 형제다. 프로 7년차인 형은 골문을 지키는 수문장이고, 프로 신인인 동생은 상대 골문을 열어야 하는 공격수다. 경남은 지난해 말 신인자우선 발로 아주대 김준선(형)-연세대 김준범(동생)을 동시에 영입해 화제를 뿌렸다.

K리그엔 외국인 형제도 있는데, 일본 출신의

와다 아츠키-와다 토모키가 서울 이랜드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다.

상대 팀 소속으로 부딪쳐야 하는 운명의 형제도 있다. 국가대표 출신의 하대성(서울)과 일본을 거쳐 올해 K리그로 복귀한 하성민(경남)은 적으로 만난다. 둘 다 미드필더여서 맞대결이 흥미롭다. 같은 포지션(골키퍼)으로 상대하는 이범영(강원)-이범수(경남)의 대결도 불만이다. 이들은 K리그 최초의 형제 골키퍼다.

1부와 2부 리그로 나뉘어 서로의 승리를 염원하는 형제도 있다. 신태용호의 핵심 미드필더 이재성(전북)과 이재권(부산)의 경우다. 이밖에 박선용(아산)-박선주(강원), 이광훈(전 수원FC)-이광혁(포항), 한홍규(전 안산)-한석중(인천) 등도 함께 프로무대를 밟은 케이스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들은 범상치 않다. 형제선수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스토리는 무궁무진하다. 올 시즌 K리그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이야기거리들 이들 형제들이 많이 쏟아냈으면 한다. chohng2@donga.com



터키 안탈리아에서 2주 간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 축구대표팀은 러시아월드컵 승선경쟁에 돌입한 태극전사들의 부상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속소 타이타닉 디럭스 골프벨레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선수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골격 갖춘 신태용호 '부상 경계령'

신 감독 "70% 완성...앞으로 30% 채워야" 27일 몰도바전 앞두고 부상 예방에 심혈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터키 안탈리아에서 2주 일정으로 동계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18러시아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향한 태극전사들의 마지막 생존무대다. 대표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일정은 3월과 5월이 전부다. 6월에는 러시아 현지에 입성해 본선에 나서야 한다. 3월부터는 사실상 최종엔트리 체제로 꾸러지기에 안탈리아 캠프에서 눈도장을 받지 못하면 본선에 함께할 가능성이 적다.

대표팀은 24일(한국시간)부터 손발을 맞추고 있다. 출국한지 이틀 만이다.

물론 여유는 없다. 곧바로 실전이 기다린다. 부족한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2주 간의 훈련캠프에서 최대한 많은 평가전을 잡아줄 것을 신 감독이 요구한 결과다. 대표팀은 27일 안탈리아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몰도바와 전훈 첫 번째 A매치를 치른다. 첫 훈련 때만 10시간 이상의 비행에 따른 회복에 전념했을 뿐, 곧장 실전모드에 돌입했다. 가벼운 미니게임과 전술훈련이 병행됐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당초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1월 초 훈련을 계획했으나 몸이 덜 만들어지고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무리를 하면 대표팀에게도, 소속 팀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선수들에게도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판단에 전지훈련 일정을 1월 말~2월 초로 조정했다.

소속 팀 전지훈련을 통해 생체리듬이 70~80% 선까지 도달한 시점에서 대표팀에 합류해 함께 땀을 흘리는 태극전사들의 자세와 마음가짐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절박함이 지금의

활기로 드러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앞서 신 감독은 "70% 팀 골격은 완성됐다. 앞으로는 30%를 하나하나 채워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래도 과열경쟁은 금물이다. 남이 죽어야 내가 올라서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웃어야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인식을 틀날 때마다 주입시키고 있다.

특히 부상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 치면 누구에게도 득이 아니다. (선수 대부분이 속한) K리그도 고려해야 한다. 안탈리아에서 치를 3경기의 주 목적은 승리가 아니다. 팀원 전체가 무사히, 또 건강하게 돌아가야 3월 마스터플랜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신 감독의 속내다.

대표팀은 몰도바전에 이어 북중미 지메이카(30일)~동유럽 라트비아(2월 3일)와 차례로 격돌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일본 축구유학 돕는 '에이스웨이'

10개 대학과 한국선수 발굴 나서 전문적 관리...J리그 도전 발판으로

일본 주요대학들이 한국축구 유망주 수급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10개 일본대학들은 최근 에이스웨이(Aceway-대표 남기무)를 통해 한국선수 스카우트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시기는 2월부터로 일본 주요대학 코칭스태프와 스카우트가 국내 고교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 선수발굴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U-18(18세 이하-상우고) 및 U-22(22세 이하-서울디지털대학) 클럽을 동시 운영하는 에이스웨이는 국내 아마추어 선수들의 일본 축구유학을 돕고 있다. 더불어 J리그 입단을 목적으로 오사카 사카이에 연고를 둔 에이스웨이 재팬(Aceway Japan)의 성장에도 정성을 쏟고 있어 일본의 많은 축구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대학축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다. 약 400팀으로 우리(82개)의 5배다. 팀당 평균 보유선수도 150명 정도다. 한국은 고작 30여명이다. 시스템도 대단하다. 전국·지역대회도 활성화돼 있을 뿐 아니라 학년별 리그도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은 모든 재학생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다.

그러나 내부경쟁은 몹시 치열하다. 선수들은 A~D레벨로 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나이가 많다고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아니다. 철저히 고학년 위주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지학년은 1~2학년 토너먼트를 제외하면 딱히 설 자리가 없는 우리의 축구현상과는 차이가 크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한국선수 수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학은 선수 스카우트 권한을 감독이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 대학은 축구지식이 많지 않은 비전문가들이 임시 실기테스트를 보고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심지어 어느 대학의 경우, 미술학과 교수가 실기테스트에 참여했다. 부정입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스포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발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 축구인은 "일본의 주요대학들은 감독·코치 이외에 스카우트까지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가 직접 뽑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물론에 있는 유망주들이 너무 많다. 2월부터 입학할 일본 지도자들은 오랜 시간 국내에 체류하며 꾸준히 선수를 체크하고 접촉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남정현 기자

한국, 카타르와 U-23 챔피언십 3·4위전

김봉길 감독이 이끄는 U-23(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26일(한국시간) 중국 쿤산에서 카타르와 대회 3위를 놓고 자웅을 겨룬다. 축구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U-23 대표팀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경기다. 자존심 회복과 함께 2020도쿄올림픽 지역예선 티켓도 걸려 있어서 놓칠 수 없다. 8월 자카르타아시아게임에 출격할 U-23 대표팀은 주전급 다수가 빠져 풀 전력 아니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유난히 답답한 행보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K리그, 영국산 '호크아이' 도입...VAR 강화

K리그가 2018시즌부터 VAR(비디오판독시스템)의 정밀함을 더하기 위해 '호크아이'를 장착한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5일 발표했다.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대회 및 독일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 등이 사용한 영국산 호크아이는 웹캠과 후조오픈 등 다른 종류의 주요 국제대회에서 신속 정확한 판정을 보인 바 있다.